



Part. 5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도출에 관한 연구



책임 연구자 **노법래**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책임연구자

노 법 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주요경력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취창업지원처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집위원장

연구실적

- 2023. A longitudinal regional study on the role of fundraising organizations affecting local giving levels in South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주저자)
- 2023, 기부 참여에 관한 국가비교 연구-140개 국가 종단 자료에 대한 예측적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주저자)
- 2023. 기후위기를 둘러싼 한국 사회 논의 흐름과 사회정책 재설계에의 함의: 2000년 이후 기사문에 대한 자연어 처리와 토픽구조 변화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주저자)
- 지역 환경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위성 이미지 처리(satellite image processing)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주저자)
-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주저자)
- 2021, 2000년대 이후 의제지형 변화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차별과 혐오 의제를 중심으로. (서울시 NPO 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기부 관련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주제 변화와 부정적 정서가 강한 기사문에 담긴 내용을 검토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한 반응으로서 유튜브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보도 권고 사항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약 20년 간의 기부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최근 5년간 관련 기부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한 유튜브 댓글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수집된 79,202건의 기사문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의미거리분석(Concept Movement Distance)을 활용하여 기사문의 전반적인 주제 흐름을 관찰하고, 부정적 정서가 큰 기사문에 담긴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추출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복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고유한 유튜브 댓글은 13,695건이었으며, 단어 간 공기성(co-occurring) 구조에 기반하여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부정적인 댓글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래프 마이닝(graph mining) 과정을 통해 주요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기부 문화에 대한 언론의 낮은 이해도와 일탈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기부 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제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한계점이 기부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부 보도에 담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부 문화와 관련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인식, 일탈에 대한 과잉 집중 경계, 모금 영역에 대한 경계 설정, 모금 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을 네 가지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기부문화, #언론보도, #댓글분석, #의미거리분석, #키워드분석, #의미연결망분석

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부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기부 문화의 긍정적인 확산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 사항에 대한 탐색적 도출이다. 기부 행위 결정에 있어 모금 단체에 대한 신뢰나 기부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부 효능감은 중요한 영향 요인들이다. 모금 단체 또한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부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선(social betterment)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 판단과 모금 단체에 대한 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기부 행위는 기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모금 단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운영 방식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모금 단체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구분과 파악을 통해 기부 행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된 기부에 대한 관심이나 기부, 모금 단체로 묶여지는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과 전반적인 수준에서 모금 단체의 가치 지향성에 근거해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 모금 행위에 이은 일탈적 행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 모금 단체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검토하면 다수가 개인의 불법적 모금 행위, 정치권에 시의 불법 정치 기부금 문제, 해외 모금 단체의 일탈 행위와 그에 대한 선정적 보도, 지자체에서의 부적절한 기부금 활용 등과 같은 내용이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이해 없는 선정적 보도 방식이 기부의 의의나 모금 단체의 신뢰성에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분석 결과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주제의 뉴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댓글을 검토해보면, 이런 뉴스 내용과 과거의 일부 국내 모금 단체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다시 재조환해서 끊임없이 기부 영역에서의 불신감을 키우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부 문화 확산에 미치는 언론 보도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약 20년 간의 기부 관련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고 몇 가지 권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론적 성격으로 언론 보도

에 대한 반응으로서 댓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유도되거나 왜곡된 주장에 재확대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과정을 아울러 포함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약 20년간 기부 관련 언론 보도 주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부 관련 부정적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언론 보도의 한 반응으로서 댓글에서 드러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부 관련 언론 보도의 주요 권고점은 무엇인가?

2.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및 전처리 과정

본 분석은 2000부터 20년간 “기부”를 검색어로 국내 주요 포털(다음, 네이버)에서 검색된 기사문 전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부를 본문에 포함하고 있지만, 기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200자 미만의 단신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 아울러 정식 언론사의 기사문이 아닌 보도 자료나 정부 홍보 자료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목을 기준으로 중복 자료는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분석에 포함된 기사문은 79,202건이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댓글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최근 5년 사이에 유튜브에 공개된 언론 보도 가운데 “모금 단체 비리”, “모금 단체 투명성”을 검색어로 수집된 자료에 달린 댓글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약 900건의 관련 보도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초기에 수집된 댓글은 약 6만 5천 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유한 댓글의 수는 13,695건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서 활용한 기사문과 댓글에 대해서는 분해 과정을 거쳤으며, 단어 분해는 Python 3.12 환경에서 konlpy 패키지(Park & Cho, 2014)를 활용했다. 댓글의 경우 오타 등으로 인하여 단어 분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모독과 같은 명백한 의도를 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단순 오타 등은 수정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단어 분해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의미거리 측정이나 댓글 자료를 활용한 의미 연결망 분석에는 분해된 단어 가운데 명사만을 취하여 진행하였다. 명사만을 활용한 것은 연구 목적상 명사만을 취해도 기사문에 담긴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함에 제한이 크지 않고, 조사나 동사 등을 포함할 때 분석 결과 이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미거리를 활용한 기사문 주제 분석과 댓글에 대한 연관 구조 검토는 모두 R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키워드 계산 등의 처리 과정은 tidytext 라이브러리(Silge & Robinson, 2016)를 주로 활용하였다.

2) 분석 단계 및 데이터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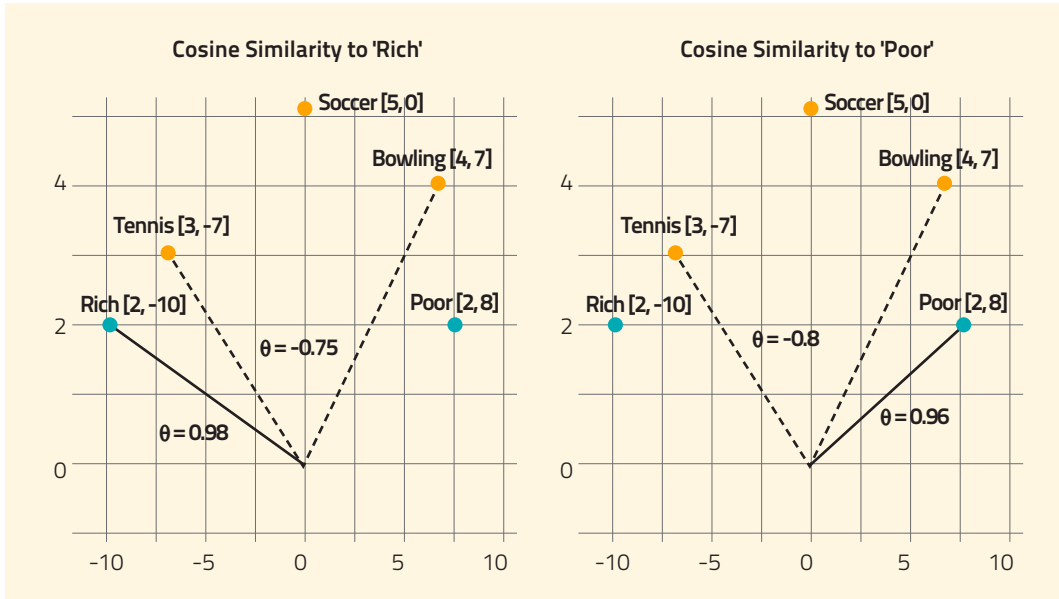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집된 기사문 주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기부 관련 기사문의 주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본 분석에서는 “자선단체”, “기업”, “정치권”, “교육”을 기준 단어로 하여서, 본문에 포함된 단어 사이의 의미거리를 측정하여 평균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선단체”는 본 분석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모금 단체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개념이지만, 언어 모형이 일반 대중의 언어를 광범위하게 학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모금단체”로 설정한 경우 다른 영역의 주제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한계가 나타났다. 다만, 이후 분석 결과 제시와 해석에서는 실제 성격에 맞게 “모금 단체”로 표기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서 본 분석에서는 기사문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긍정성과 관련해서 4개의 단어(공익, 헌신, 도움, 행복), 부정성과 관련하여 4개의 단어(비리, 불신, 불법, 횡령)를 선정하여 텍스트에 담긴 단어와의 거리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사문의 정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사문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벡터(word vectors)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제와 관련한 네 가지 단어와 반대되는 두 정서를 나타내는 8개의 단어와 각 텍스트 사이의 의미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어 벡터는 단어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단어 간 의미상 유사성과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사전에 학습된 언어 모형으로 볼 수 있다(Milkolet et al, 2013).

[그림 1]은 단어 벡터를 활용하여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코사인 거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예시의 좌측 그림은 “부유함(rich)”에 의미상 가까운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테니스가 볼링에 비해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언어 습관 속에 테니스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함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가난함(poor)”과의 관련성을 다룬 우측의 그림은 반대로 테니스에 비해 볼링이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단어 벡터를 활용한 개념 간 거리 측정 예시(Taylor & Stoltz, 2020)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되는 텍스트를 정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앞에서 수행한 정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긍정성이 높은 상위 10,000개의 기사문과 부정적 성격이 가장 큰 상위 10,000개의 기사문을 통합하여 두 집단에서 어떤 특징적인 키워드가 나타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기사문에 담기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분석은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비교 대상인 텍스트의 키워드를 추출함에 있어서 단어의 빈도(popularity)와 고유성(specificity)을 중심으로 키워드 성격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Aizawa, 2003).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댓글에 포함된 단어들의 공기성(co-occurrence)에 기반하여 연결 구조를 파악하는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 일반적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은 단어 짝들(pairs)의 조합을 대상 단위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한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Doerfel, 1998). 여기서 의미(semantic)란 인간

의 언어 활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연속적 측면에 의해 구성되는 뜻(meaning)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로 표현된 단어 사이의 관련성은 유사성(similarity), 공기성(co-occurrence), 연관성(association)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Christensen & Kenett, 2023). 의미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에 대한 관찰은 전체 의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의미 구조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유사성,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의미의 조각’을 분리함으로써 의미 구조를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그래프 마이닝(graph mining) 과정을 통해 하위 네트워크를 추출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댓글 반응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적 요소가 무엇인지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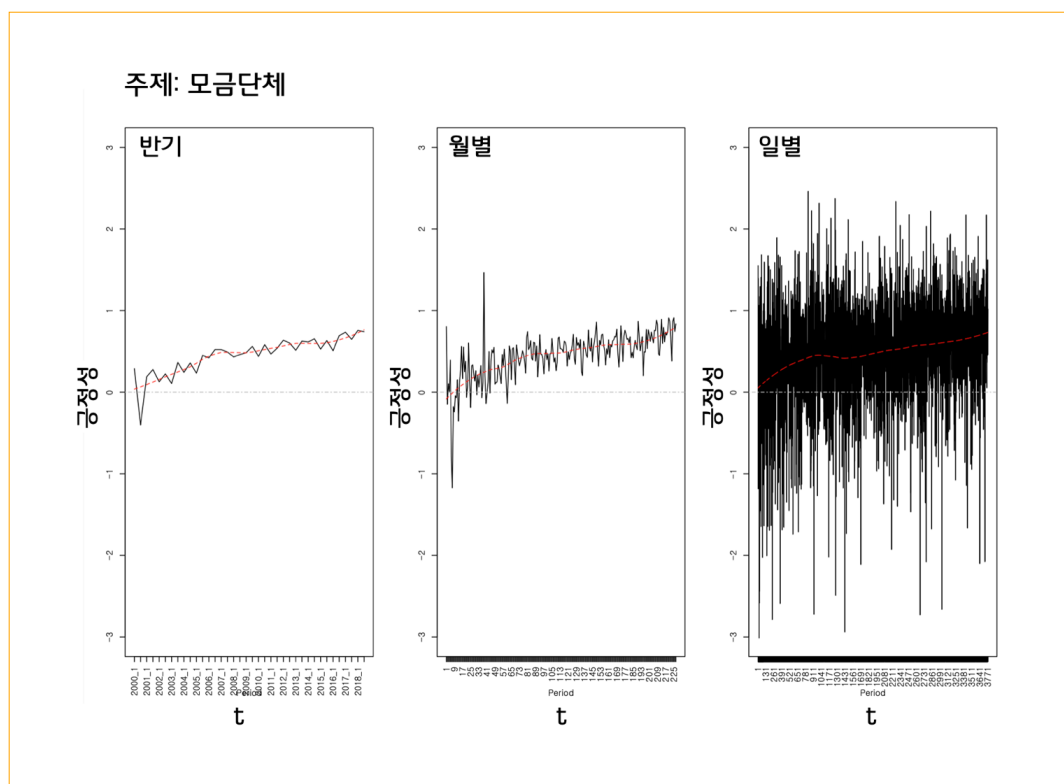
1) 보도 주제의 전반적 변동

[그림 2]는 주제 측정 과정에서 모금 단체와 가장 가까운 기사문의 긍정성 평균의 추이를 살펴 본 결과이다. 측정 시기를 반기, 월별, 일별로 나누어서 관찰하였으며, 각 그림에는 전반적인 추이를 다루기 위한 평활화(smoothing)된 곡선을 함께 점선으로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금 단체에 대한 기사문에서 긍정성이 높아지는 추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찰의 시간 단위를 짧게 가져갈수록 파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별 추이를 보면 특정 시점에서 긍정성이 매우 낮은(즉, 부정성이 매우 높은) 기사들이 출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를 해석하자면 모금 단체와 관련된 기사문에서 전반적인 긍정적 보도 추이가 관찰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 서술이 강하고,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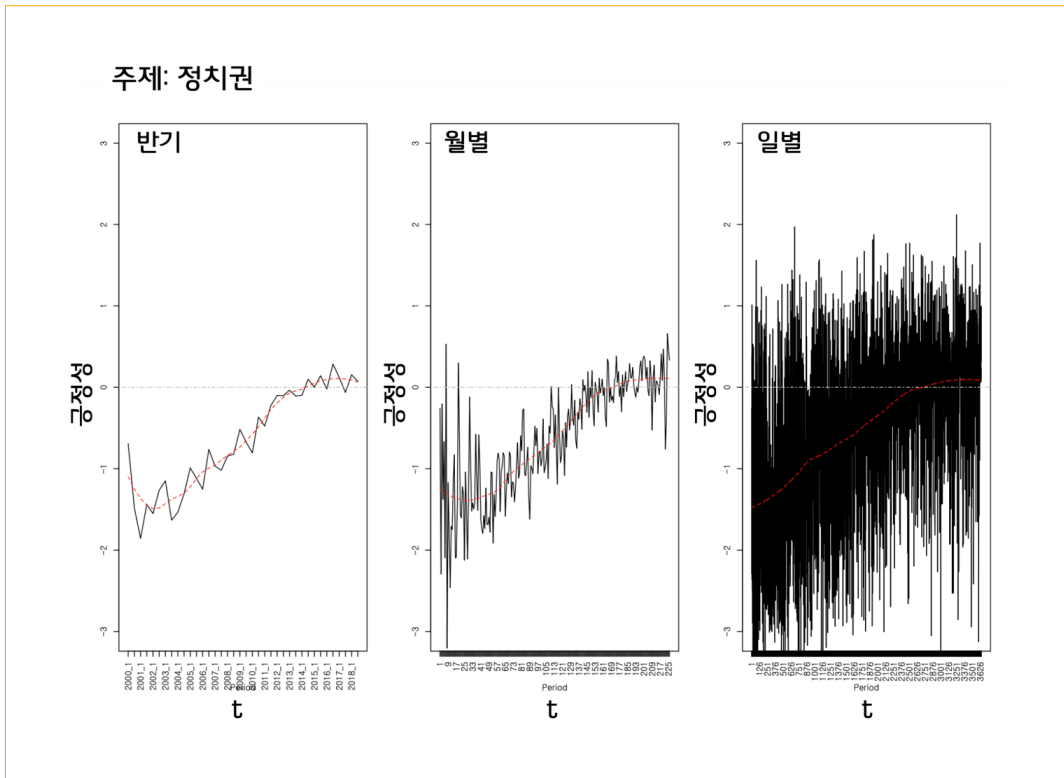
[그림 2] 보도 내용의 긍정성 변화 추이(모금 단체)



[그림 3]은 정치권과 관련성이 높은 기사문의 긍정성 추이를 검토한 결과이다. 정치권 관련 기사문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정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기로 올수록 부정적 성격이 다소 완화되는 추이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 시기를 일별로 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기사문이 부정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특정 시점에서 부정적 성격이 특히 높아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기부 관련 기사문에서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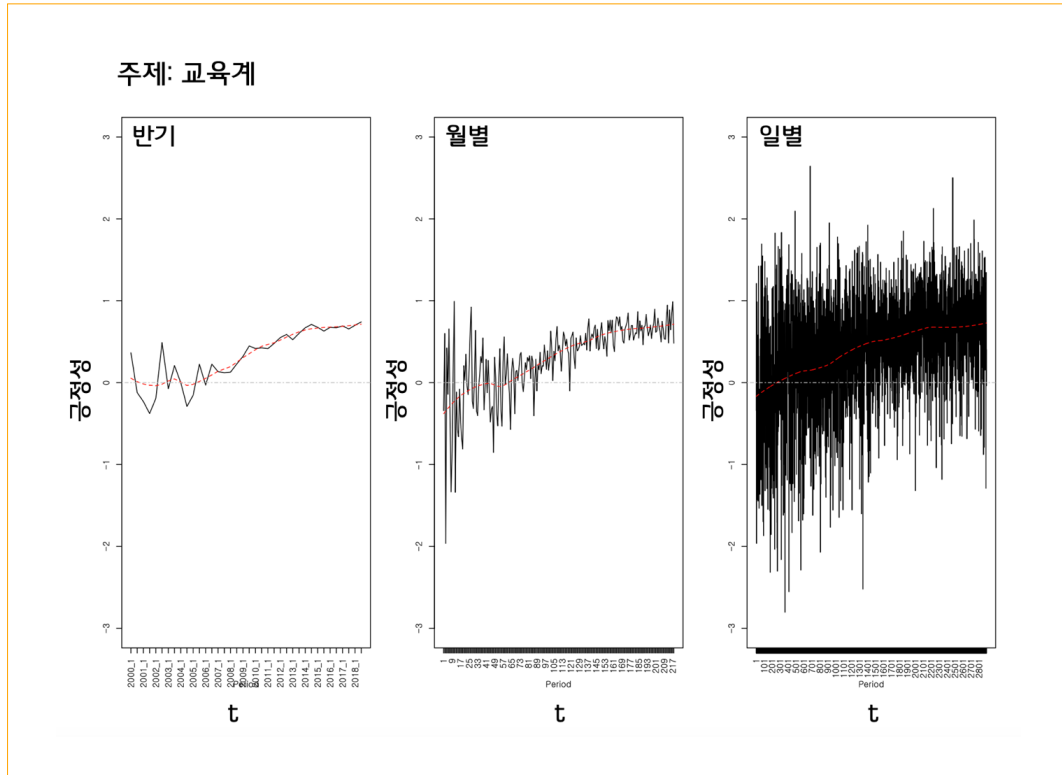
성격을 지니는 경우는 상당 부분 정치권의 정치 모금과 관련된 잡음에 대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보도 내용의 긍정성 변화 추이(정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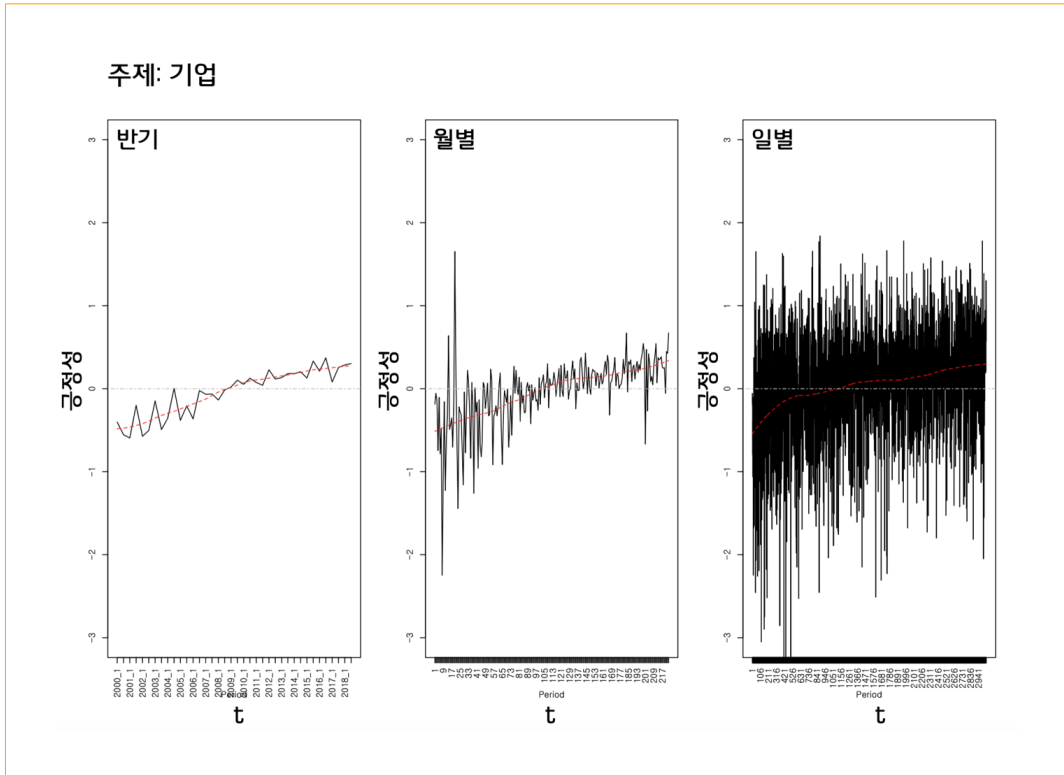
[그림 4]는 교육계와 관련성이 높은 기사문의 긍정성 변화를 검토한 결과이다. 교육계 관련 기사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 시점을 일별로 좁혔을 때 파동이 관찰되지만,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보도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계 관련 기사문의 부정적 특성은 주로 2005년 이전에 주로 확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기 단위로 측정된 결과에서도 2005년 이후부터는 긍정성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추이가 나타나지만, 이전 시점에서는 일정 수준의 파동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보도 내용의 긍정성 변화 추이(교육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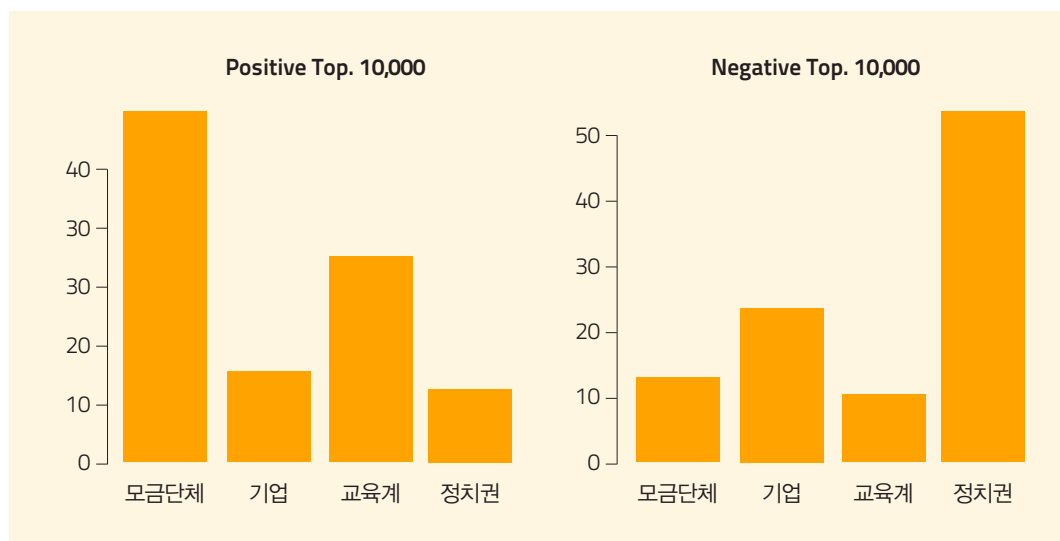
[그림 5]는 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부 관련 기사문의 긍정성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기업의 경우 모금 단체나 교육계에 비해서는 긍정성이 다소 낮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인 상승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이전에는 부정적인 성격의 기사문이 좀더 우세했으며, 시기에 따른 파동이 전체 시기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 단위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일정한 주기성을 지니고 부정적인 기사가 집중되는 패턴이 탐색적인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 보도 내용의 긍정성 변화 추이(기업)



[그림 6]은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 각 상위 10,000건에서 네 가지 주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이다. 좌측의 그림은 긍정성이 높은 상위 기사문의 주제 분포를 살펴본 것으로서, 50%이상이 모금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기사문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정치권 관련 보도로 약 10% 수준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우측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상위 10,000건의 기사문에서는 정치권 관련 기사문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 기사문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교육 관련 내용으로서 10%에 미치지 않았다. 모금 단체 관련 기사는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주제 분포(상위 10,000위)



2) 키워드 분석 결과

[표 1]은 키워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성격이 강한 상위 10,000건의 기사문과 부정적 성격이 강한 상위 10,000건의 기사문을 취합하여 키워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로 2010년 이전 기사문과 이후 기사문을 나누었다. 따라서, 키워드 추출을 위해 비교되는 텍스트 집단의 수는 네 개가 된다.

기사의 긍정성-부정성 사이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 부정적 기사문에는 종교계에서의 모금 비리, 해외 모금 단체를 둘러싼 논란, 지자체의 비위와 관련된 단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정치적 이슈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기사문의 경우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모금 단체가 주요 키워드로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분석 결과는 앞서 수행된 주제별 긍정성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와 상당 부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부와 관련한 부정적 기사의 상당수는 정치권, 지자체, 해외 모금 단체 이슈 등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분적으로 모금 단체 관련 내용이 부정적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짧은 기간 동안 부정적 정서가 큰 모금 단체 관련 기사가 출현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1. 키워드 분석 결과

순위	부정적				긍정적			
	<2010		2010+		<2010		2010+	
	word	tf_idf	word	tf_idf	word	tf_idf	word	tf_idf
1	목사	0.00059	세월호	0.00094	마라톤	0.00057	초록우산	0.00097
2	수재민	0.00059	고액	0.00055	패션쇼	0.00045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00058
3	게이츠	0.00054	지진	0.00054	칼텍스	0.00044	롯데카드	0.00051
4	결핵	0.00050	피해자	0.00054	아모레퍼시픽	0.00036	환우	0.00050
5	수해	0.00044	경찰	0.00047	참가자	0.00035	션	0.00050
6	식량	0.00044	연평도	0.00046	굿모닝신한증권	0.00034	소셜기부	0.00049
7	태풍	0.00042	봉투	0.00046	전시회	0.00033	응원	0.00049
8	방안	0.00041	통일	0.00044	파리바게뜨	0.00032	티몬	0.00047
9	수재의연금	0.00039	희생자	0.00042	기획	0.00031	반려동물	0.00044
10	노조	0.00037	이중	0.00041	태평동	0.00031	기적	0.00041
11	대북	0.00037	혐의	0.00040	사회봉사활동	0.00029	꿈	0.00040
12	에이즈	0.00037	국세청	0.00038	주먹밥	0.00029	미래에셋생명	0.00038
13	거액	0.00037	대지	0.00038	옥시	0.00028	아너소사이어티	0.00037
14	반납	0.00036	**재단	0.00036	유방암	0.00027	유니클로	0.00037
15	송금	0.00036	종교단체	0.00035	기증품	0.00027	재능	0.00035
16	혐의	0.00035	내역	0.00033	불우이웃돕기	0.00027	현대해상	0.00034
17	경찰	0.00034	신고	0.00033	풀무원	0.00027	광동제약	0.00034
18	기독교	0.00033	사료	0.00032	현대홀딩스	0.00027	세이브더칠드런	0.00033
19	피해지역	0.00033	*****업	0.00032	청정원	0.00026	키트	0.00033
20	예산	0.00032	위안부	0.00030	이마트	0.00026	넥슨	0.00030

3) 댓글 분석 결과

지금부터는 댓글 분석을 통해 기부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의 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기준 설정에 따라서 그래프 구조에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연관성 여부에 대한 기준(cutoff)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7]은 연관성에 대한 기준을 달리했을 때 그래프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연관성에 대한 기준을 0.01부터 0.2까지 0.01 단위로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검토하였다.

좌상단의 A는 컷오프 변화에 따른 노드(단어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노드를 삭제하는 등의 추가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약 600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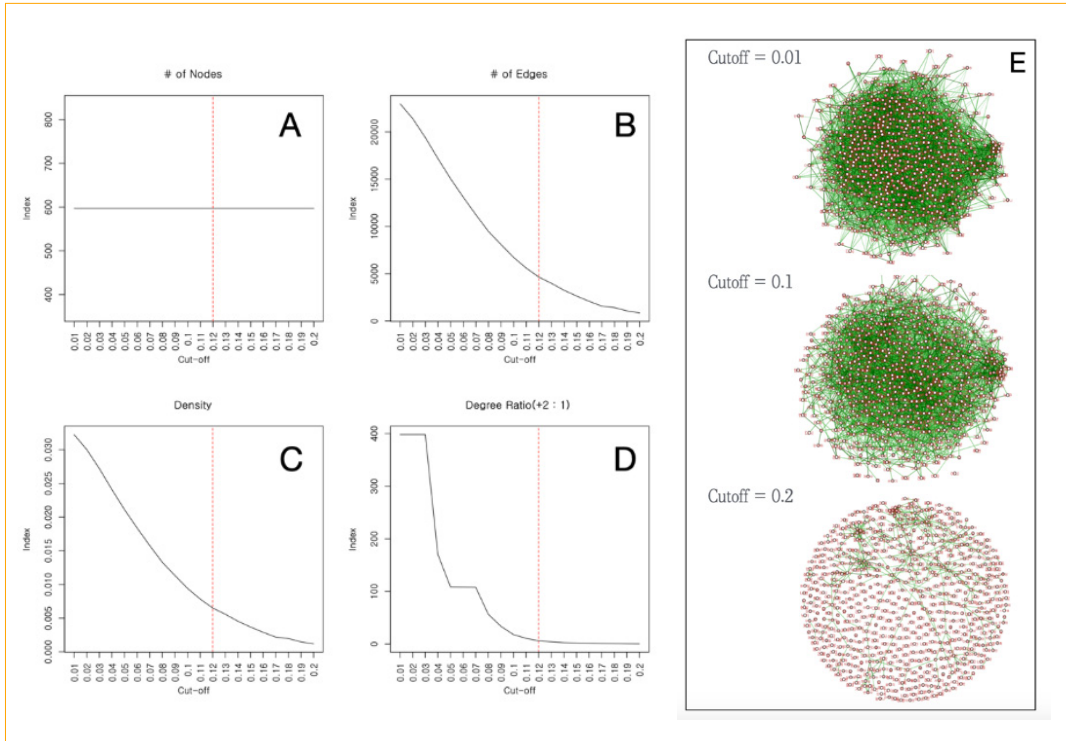
B는 기준 변화에 따라 그래프 전체의 링크(edge)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한 결과이다. 기준을 높임에 따라서 링크 수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전반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링크 수가 감소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기준점 변화에 따라 그래프의 밀도(density)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한 결과이다. 여기서 밀도는 가능한 전체 링크 수 대비 실제 링크의 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B의 링크의 수 변화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D는 각 노드에 연결된 링크 수(degree)를 계산하여 2개 이상인 노드 수와 1개인 노드 수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 지표는 B에서 검토한 밀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노드의 개별적인 연결 수준에 기반하여 그래프 구조의 성김(혹은 뻣뻣함) 정도를 검토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측의 E는 실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래프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기준점을 0.01로 했을 때는 지나치게 밀도가 높아 의미 있는 하위 커뮤니티의 도출이 어려우며, 0.2로 했을 때는 연결되는 단어가 거의 포착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그려나는 바와 같이 0.1 수준에서 하위 커뮤니티의 분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A~D에서 점선의 수직선으로 제시한 0.12를 기준점으로 선택하였다. 해당 지점은 기준 변화에 따른 그래프 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그래프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명성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7] 단어 연관 구조 시뮬레이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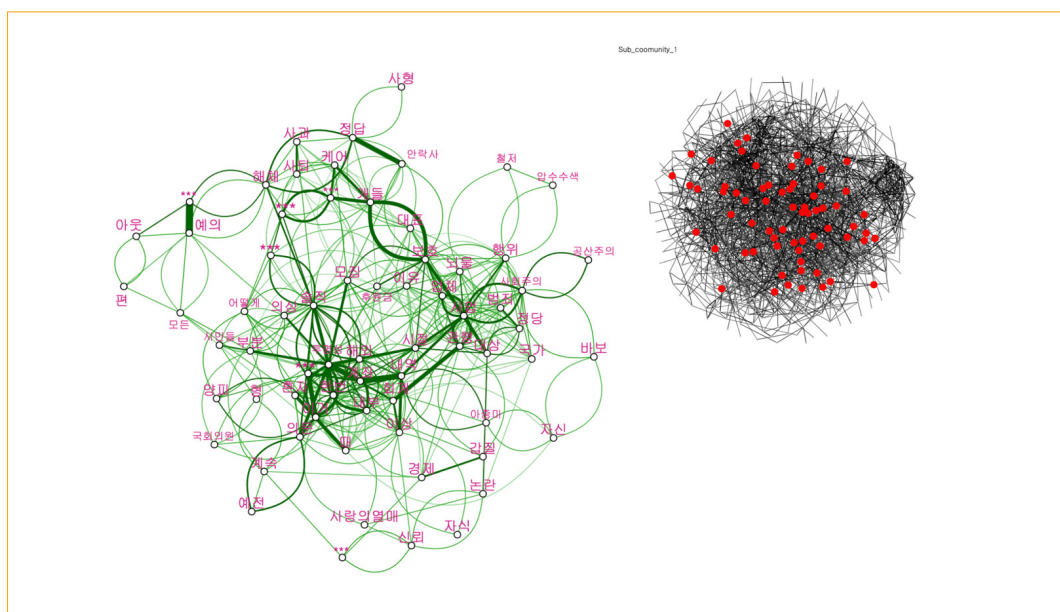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그래프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단어 군집(sub-communities)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자 한다. 그래프 마이닝에 따른 하위 군집은 다수가 포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드(단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세 개의 군집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로 상위 세 개의 군집 이후부터는 군집의 규모가 빠르게 작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 댓글에 담긴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은 가장 큰 규모의 군집을 제시한 결과이다. 좌측의 그림은 첫 번째 군집에 속하는 노드만을 따로 추출하며 제시한 것으로, 선(edge)의 굵기는 연관성의 크기를 의미한다. 우측의 그림은 해당 군집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분포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조직(별표 처리)을

뜻하는 단어가 다수 포함된 이 군집의 특성은 기부액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용하다는 식의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군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댓글이 달린 보도 내용이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성이 떨어지는 억측이 다수 포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도 내용은 정치 자금과 관련된 비리거나 해외 모금 단체에서 발생한 이슈인데, 댓글에서는 한국 모금 단체 일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예, 개인 기부금이 특정 이념을 지닌 정당의 활동에 쓰인다는 식이나 대형 모금 단체와 정치 단체의 야합 등에 대한 음모론 등)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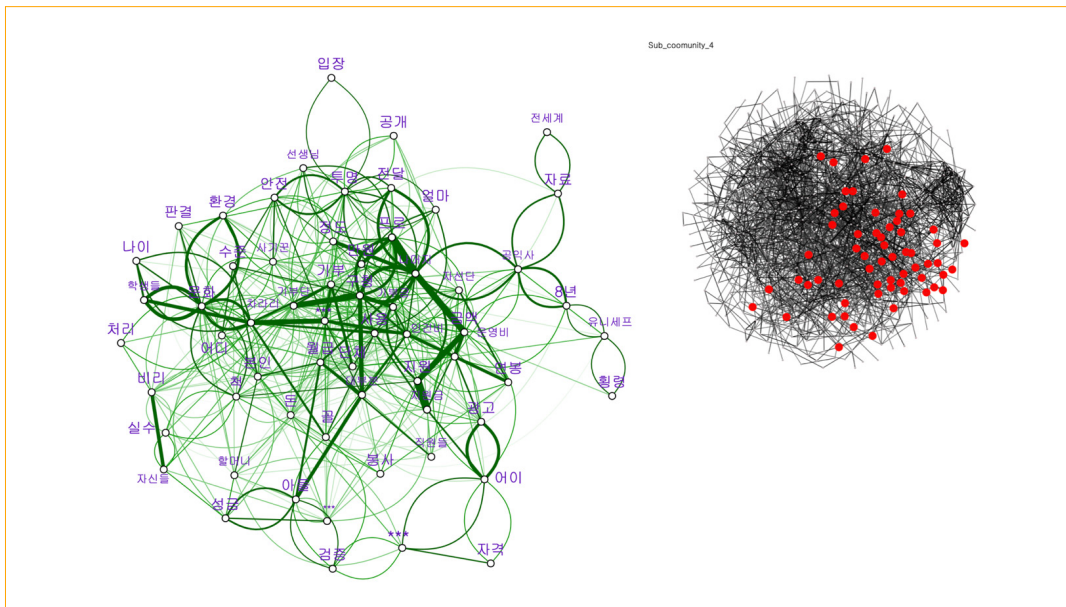
[그림 8] 모금 단체와 정치적 결탁



[그림 9]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군집을 따로 제시한 결과이다. 이 군집은 중심도가 높은 단어 배치를 검토할 때, 모금 단체의 운영비 사용에서의 불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월급”, “사용”, “인건비”, “직원들”과 같은 단어 구성을 통해서 그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군집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차라리”인데, 이는 모금 단체 운영에서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직접 기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주장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군집과 관련된 댓글의 내용은 상당 부분 과장되고 허황된 내용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공감(좋아요) 수준이 높은 댓글의 내용에 “모금액의 80%는 운영비로 쓰고 20%만 가난한 사람에게 간다”거나, 특정 모금 단체를 언급하면서 직원 평균 연봉이 수억 원이라고 하는 식의 허황된 주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두 번째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댓글들이 허황된 측면이 많고, 인용 또한 부정확하지만 주장의 일정 부분은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연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댓글의 상당수가 정치권에서의 정치 자금 모금에서의 비리와 일반적인 모금 단체의 활용을 뒤섞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대형 모금 단체가 모금액을 특정 사회운동 단체나 정치인, 당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연결된다는 식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비용 운영에서의 불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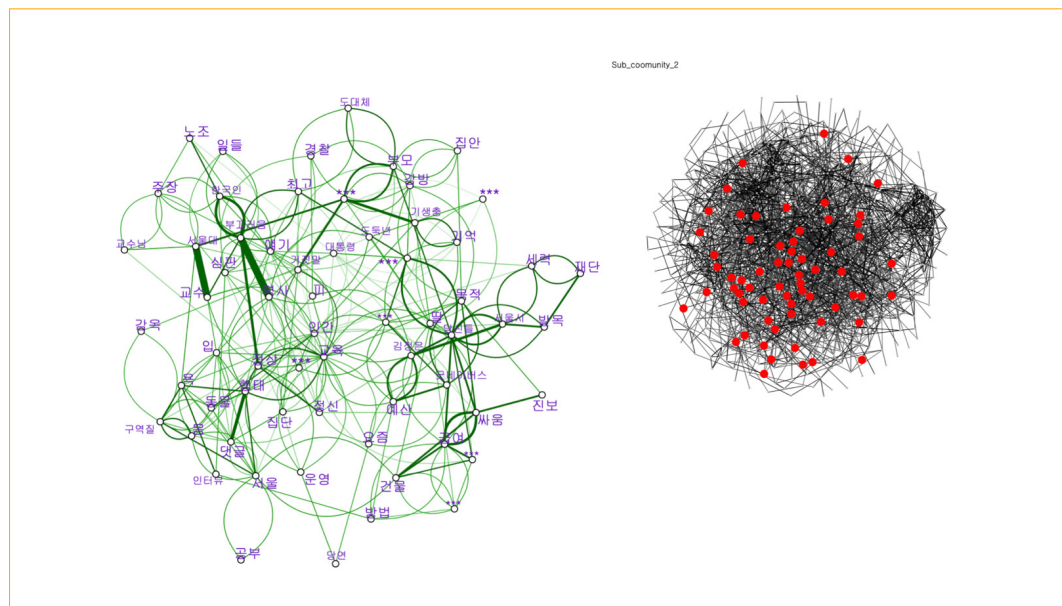
[그림 10]은 세 번째로 가장 큰 군집을 따로 제시한 결과이다. 기부와 관련한 부정적 댓글의 일반적인 특성이 오타와 문법적 오류가 심한 경우가 특히 많다는 점인데, 하위 군집에 있어서도 단어 간 연관성은 포착이 되지만 실제 내용은 여러 주제가 뒤섞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관련 댓글

글들이 일관된 주장이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러 주장이 정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 번째 군집은 하나의 주제로 묶기 어려운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였다. 다만, 군집의 명칭을 “모금 단체의 필요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혼재된 댓글 내용을 전반적으로 가로지르는 정서가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뒤섞인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신과 무지는 공통적으로 모금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 번째 군집에 속하는 단어가 복수로 출현하는 댓글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기부를 해야 한다면, 진위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자신이 직접 행정 기관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구해서 현물을 전달했다는 식의 경험담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 군집에서 주요하게 포착되는 단어들 가운데는 앞서 검토했던 정치적 결탁 이슈나 모금 단체의 운영비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단체를 언급하면서 제시하는 단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모금 단체의 필요성



4. 논의의 종합 및 보도 관련 주요 권고점

지금까지 수행한 분석 결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요약한 결과를 [그림 11]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상단의 내용은 약 20년간의 기부 관련 언론 보도의 내용 흐름을 통해 도출한 결과이며 하단의 내용은 댓글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여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은 기부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일탈에 대한 과잉된 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은 특히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치 자금을 둘러싼 일탈적 행위와 비리 사건과 일반적인 공익 모금 행위 사이의 혼재된 보도 양태이다. 정치 자금 확보와 활용을 둘러싼 비위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건과 관련된 단체의 성격을 일반적인 공익 단체와 구분되지 않게 제시하거나, 정치 자금 확보 과정을 일반적인 모금 활동과 구분 없이 제시함으로써 모금 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치권을 둘러싼 기부 관련 이슈는 다수가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전체 기부 관련 기사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기부 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모금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몰이의 측면에서 모금 단체 활동에 대한 악의적 보도가 범람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도 있었다.

두 번째는 기부 보도에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를 이루는 가운데, 그 내용에서도 홍보의 성격이 짙은 보도가 과잉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기부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노력을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될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기부 활동 참여를 다루는 기사의 상당수가 기부와 관련된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고 있고, 해당 활동의 사회적 의의나 기부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모금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나 관련된 역할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깊이 없는 보도의 대량 양산은 기업의 기부 참여 의의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모금 단체의 역할 또한 주변화하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약 20년에 걸친 기부 관련 기사 가운데서 기부 문화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모금 단체의 역할

을 조명한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반 기부 관련 보도 내용에서도 모금 단체 역할이나 한국 사회에서의 기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분석 결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금 단체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나는 경우는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된 보도에서 주변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였으며, 기부 문화 확산과 기부 행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모금 단체의 노력이나 고유성을 조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정치권과 연루된 모금 단체에서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더해지면서 모금 단체의 역할과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불신으로 이어지는 여론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 방식이 기부 문화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다. 기부 행위에 대한 낮은 효능감과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은 개인의 기부 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크다. 덧붙 분석을 통한 주요 의미 군집 도출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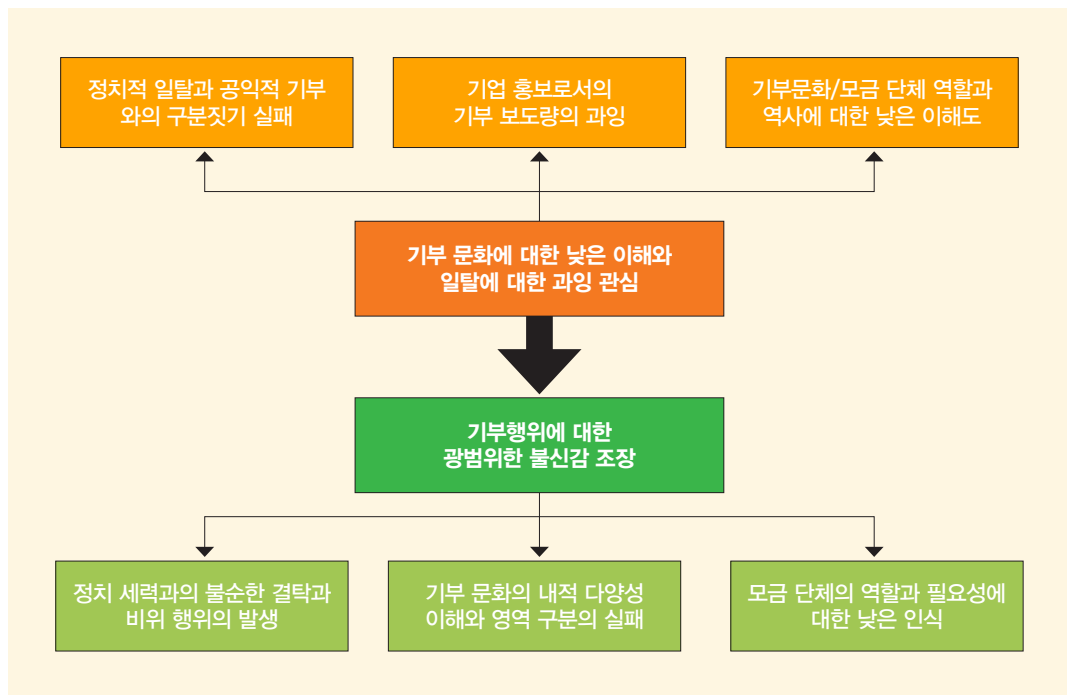
첫 번째로 관찰되는 반응은 모금 단체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거나, 비위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왜곡된 이해였다. 이것은 정치 자금 마련과 유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에 대한 보도나 모금 단체와 관련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한 기사에서 무차별적으로 모금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선정적 보도 태도와 관련이 있다. 특히, 가치 지향적 성격이 높은 모금 단체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닌 개인의 공격적 감정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이슈와 공익을 향한 노력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보도 양상의 결합은 기부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개인의 주목은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 확산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두 번째로 관찰되는 내용은 기부 문화의 다양성과 이를 구성하는 내적 다양성에 대한 정당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행위로서 기부는 여러 차원에 의한 내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부 행위의 기본적인 가치 지향, 기부 영역, 기부에서의 전달 체계, 기부에 반영된 주요 사회 문제 인식, 정부나 시장과 같은 주요 사회 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드러나는 모금 단체의 지향성과 고유한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차원이 관여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기부 문화의 내적 다양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서 드러나는 기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재는 기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부와 관련된 예외적이고 한정된 일탈 행위가 전체 기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두고 전체 기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 참여와 달리 모금 활동의 경우 일탈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모금 단체의 역할에 대한 조명 노력의 부족과 기부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모금 단체 역할에 대한 모호한 인상과 기부 문화 확산의 핵심적인 촉진자이자 기금 운영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보다는 주변적인 참여자의 인상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금 단체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은 언론에서 부각되는 일탈 행위의 강조가 지니는 파급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1.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기부 문화의 긍정적인 확산을 위한 언론 보도에서의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라서 기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부 관련 보도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부 문화 확산이 가져오는 사회 통합의 실현, 사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서 지니는 고유한 가치 등이 기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한계와 선정적 보도 태도에 의해 위축되는 사회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탈에 대한 과잉된 집중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금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여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탈적으로 보이는 측면만을 과잉하게 부각하는 보도 태도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일탈에 과잉된 초점을 두는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사실 관계의 왜곡이나 부정확한 용어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년간 많지 않은 몇 개의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몇글 등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일탈에 관심을 둔 과잉된 보도 태도가 미치는 장기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과정에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과거 모금 단체의 “비리”를 다룬 것으로 언급된 기사의 상당수가 웹 상에서 제목은 검색이 되지만 실제 기사문은 포털 등에서 삭제되어 있는 등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확한 기사의 폐해와 기부 문화에의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기사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금 영역의 일정한 구분에 입각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앞서 약 20년간의 기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문들은 대부분 정치 자금과 관련된 영역이었으며, 지자체의 관련 비위 행위도 다수 포착하였다. 부분적으로 문화·체육 단체의 비리 행위도 포착이 되었는데, 이 경우 일부 사례는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주요 비리 영역이 일반적인 모금 단체와 동일하게 다뤄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방식에는 기부 행위 그 자체가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모금 행위나 정부(지자체)가 관여되는 모금과 같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 일반의 공익을 위한 모금 활동과의 일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 이런 선 긋기는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상황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기부와 관련된 일반적 용어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기부 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모금 단체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바람직

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모금 단체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는 내용을 기사 주제로 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기부자(개인 혹은 기업)의 기부 노력에 대한 의의를 조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노력을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파트너로서 모금 단체에 대한 소개와 역할에 대한 조명도 일정 부분 다를 필요가 있다. 즉, 기부자의 노력이 해당 모금 단체의 어떠한 고유한 장점에 의해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기부자의 노력이 지니는 가치를 더욱 부각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파트너로서 모금 단체의 존재를 주변화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익을 위한 기부자의 선량한 노력과 신뢰롭고 역량 있는 모금 단체의 협력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기부 행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약 20년간의 기부 관련 기사문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언론 보도의 한 반응으로서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기부 보도와 관련한 네 가지 권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인 결론은 추후 기부 관련 기사문에 대한 보다 깊은 내용 분석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도에서 드러나는 용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방식에 대한 권고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Aizawa, A. (2003). An information-theoretic perspective of tf-idf measur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39, 45–65.
- Christensen, A. P., & Kenett, Y. N. (2021). Semantic network analysis (SemNA): A tutorial on preprocessing, estimating, and analyzing semantic networks. *Psychological Methods*, 28(4), 860–879.
- Doerfel, M. L. (1998). What Constitutes Semantic Network Analysis? A Comparison of Research and Methodologies'. *Connections*, 21(2), 16–26.
- Mikolov, T., Yih, W. & Zweig, G. (2013), "Linguistic regularities in continuous space word representations," Proceedings of the 2013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 Park, E. & Cho, S. (2014)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 Cognitive Language Technology, Chuncheon, Korea, Oct 2014.
- Silge, J., Robinson, D. (2016).Ttidytext: Text Mining and Analysis Using Tidy Data Principles in R. *Journal of Open Source Software*, 1(3), 37.
- Taylor, M. A., & Stoltz, D. S. (2020). Concept Class Analysis: A Method for Identifying Cultural Schemas in Texts. *Sociological Science*, 7, 544–569.